

# ‘한국인 슈바이처’ 담양에 잠들다

## 아프리카 수단서 교육봉사·인술 펼친 이태석 신부 선종



### 군의관 마친 후 광주가톨릭대서 사제의 길로

아프리카 오지인 수단에서 의료 봉사와 교육활동을 펼쳐 ‘한국인 슈바이처’로 칭송받던 이태석(요한) 신부(사진)가 지난 14일 새벽 5시 35분 선종(善終)했다. 향년 48세. 부산에서 태어나 광주 가톨릭대를 거쳐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와 교육분야에서 봉사와 인술을 펼쳤던 그는 16일 담양 천주교 공동묘역에 안장된다.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고인은 군의관 복무를 마치고 지난 1994년 광주 가톨릭대를 졸업한 뒤 살레

시오회에 입회한 의사(醫師) 신부로, 2001년 사제품을 받은 후 지난 2008년 11월까지 8년간 아프리카 수단에서 현지인들에게 선교활동과 함께 의료봉사와 교육활동을 펼쳐왔다. 이 신부는 수단 남부에 위치한 톤즈라는 시골 마을에 병실 12개짜리 병원을 지어 한센병을 비롯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치료하고 학교와 기숙사를 세워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등 봉사를 실천했다.

그는 수단 사람들을 위해선 몸을 아끼지 않고 인술(仁術)을 행했으나 정작 자신의 건강관리는 소홀했다. 그는 지난해 초 대장암 선고를 받고 국내에 머무르며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이 신부는 수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생활성서사)를 펴내기도 했다. 월간 ‘생활성서’에 2년간 연재했던 글을 엮은 책을 통해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에서 현지인들의 몸과 마음을 보살폈던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이 신부의 활동이 지난 2003년 말 한 국내 방송사 다큐 프로그램을 통



고(故) 이태석 신부가 수단 남부 시골마을 톤즈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어린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미국 샌디에고 한인천주교회 제공)

해 알려지자 방송 직후 인터넷을 통해 후원회(‘수단 이태석 신부님’·cafe.daum.net/WithLeeTaeSuk)가 결성되기도 했다. 3천여명에 이르는 이 카페를 중심으로 의사이자 종교인이었던 고인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신부는 2006년 11월 제7회 인재 인성대상 특별상, 2007년 3월 제

23회 보령의료봉사상, 2009년 12월 제2회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등을 수상했다. 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살레시오 관구관, 장례 미사는 16일 오전 8시30분 봉헌된다. 장지는 담양 천주교 공동묘역인 살레시오 성직자 묘역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나원침 (8006) 김종두



# 희망근로도 ‘바늘구멍’

## 광주, 신청 이틀만에 정원 2배 초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 광주지역 신청자가 정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등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희망근로 참여자를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까지 전국에서 10만7천596명이 신청해 예정 인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률은 강원이 203.7%로 가장 높았고, ▲광주 200.2% ▲충북

183.8% ▲대전 183.4% ▲경북 162.7% ▲부산 161.3%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이틀간 7천659명이 지원해 총 정원(3천826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과 울산은 각각 42.7%, 39.9%로 타 시·도에 비해 희망근로에 대한 호응도가 낮았다. 신청자 성별은 남·여 각각 42.8%, 57.2%로 여성 신청자가 더 많았다. 광주시·전남도 등 각 지자체는 오는 22일까지 희망근로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할 예

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한편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천727억원을 투입해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U대회 준비기획단 발대

무급 인사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했다.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기획단이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단장인 김문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비롯 체육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실무진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한상률 비판 前 세무서 직원

### 소청심사서 해임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극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려 파면된 김동열(48) 전 나주세무서 계장이 15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결정 통보를 받았다. 15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의 징계(파면)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김 전 계장에 대해 전날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으로 결정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해임으로 결정됐음’을 통보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어제 부분일식

오후 4시 41분부터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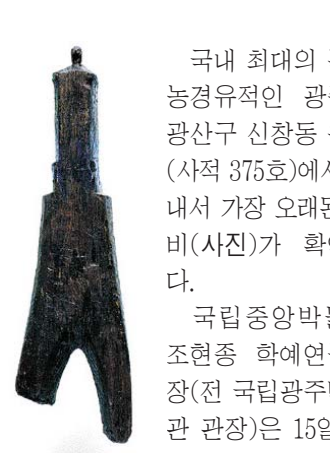
15일 오후 4시 41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진행됐다. 이번 일식은 아프리카와 중국 등지에서는 금환일식으로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식 진행 도중에 해가 지기 때문에 부분 일식으로 관측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사법 60년 판례집 분석해보니 판결문 한 문장이 A4용지 3장

한문·일본식 표현 수두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문을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분석해볼 때 한 문장에 들어간 글자 수가 평균 394.1자였다. 한 문장 안에는 평균 14.9개의 문장이 중첩돼 ‘~하였고’, ‘~했으나’ 등의 연결어미로 이어지는 바람에 판결문 이해를 한층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91년 ‘판결문 작성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을 통해 문장을 짧게 나누고 항목별로 번호를 붙이며 참조 등 두루점을 적절히 찍을 것 등을 장려하기도 했다. 판결문 이해가 어려웠던 데는 한문투의 문어체와 일본어식 표현 탓도 컸다.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금원’을 ‘돈’으로, ‘하자’를 ‘흠’으로, ‘인용한다’를 ‘받아들인다’로, ‘가사(假使)’를 ‘실사(設使)’로 바꾸는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권고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자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편이다. /연남뉴스

### 신창동 출토 쌍따비

### 국내 最古 확인



국내 최대의 복합농경유적인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사적 375호)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따비(사진)가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조현중 학예연구실장(전 국립광주박물관 관장)은 15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신창동유적 국제학술포럼 발표문을 통해 “신창동에서 발견된 쌍따비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비는 손잡이를 잡고 발판을 밟아 삽질하듯 땅을 일구는 농기구로, 형태에 따라 외따비와 쌍따비로 나뉘는데 신창동에서 나온 따비는 쌍따비(‘사’자형)이다. /연남뉴스

### 10억대 취업사기

### 前 한나라당직자

### 항소심서 ‘1년 더’

집권당 당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10억원대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한나라당 전남도당 전 간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15일 취업을 미끼로 14억원대 ‘뒷돈’을 받아챈 김 형의(사기)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 간부 원도(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거액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외면한 채 선처만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0분 해질 17시 44분 달돋이 08시 06분 달짐 18시 40분

**불에 내려 앉은 햇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구분	기온
광주	맑음 -6/6℃
목포	맑음 -4/8℃
여수	맑음 -3/7℃
완도	맑음 -8/6℃
구례	맑음 -6/8℃
해남	맑음 -6/8℃
장흥	맑음 -6/8℃
고흥	맑음 -6/9℃
순천	맑음 -4/7℃
영광	맑음 -7/5℃
진도	맑음 -4/8℃
전주	맑음 -7/5℃
남원	맑음 -11/5℃
축산도	맑음 1/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5/7	-3/9	0/11	3/11	3/8	0/5

### 주말·휴일 날씨 풀린다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맑은 가운데 추위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돼 나들이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6일 광주·전남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을 것”이라고 15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5도~9도. 휴일인 17일도 대체로 맑았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영하 5도~영상 7도로 전망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용산참사 무리한 진압”

##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 김형태 변호사 밝혀

‘용산참사’ 당시 경찰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진압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있다”며 무리한 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허용에 따라 열람한 미공개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지도부가 상황을 잘 몰랐다. 특공대가 공명심에 이룬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망루 안에서 시너와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을 보고받았다면, 저희가 결

### 공무원이 시장 메일 해킹... 출마 예정자에 유출

○경남지역 한 지자체의 전산 담당 간부가 단체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측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경남 밀양시는 15일 전산담당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 상황이면 (작전)을 중지시킨다는 진술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비 부족으로 (진압) 작전 계획에 큰 변경이 있었고 작전의 근본적 변경에 대한 (경찰 지휘부) 시인이 있었다”며 “진압계획서 없이 (변경된) 진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남뉴스

### 공무원이 시장 메일 해킹... 출마 예정자에 유출

○밀양시는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최근 입 시장의 이메일 내용을 문서로 출력한 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측의 사무실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공무원들의 ‘출서기’ 실체가 심각하다”는 반문. ○실제 시장 출마예정자 측의 한 인사는 최근 밀양시의 모 공무원이 입 시장에게 ‘승진에 감사하며 지방선거에서 적극 지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낸 메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A씨가 해킹한 개인 정보의 파장이 ‘일파만파’. ○시 관계자는 “공직자를 상대로 내부 정보를 빼낸 파렴치한 행위는 시의 명예와 전 공직자의 위상을 실추시킨 일인 만큼 사법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 명백히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연남뉴스